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11)
(佛言)飯惡人百 不如飯一善人
(불언)반악인백 불여반일선인
飯善人千 不如飯一持五戒者
반선인천 불여반일지오계자
飯五戒者萬 不如飯一須陀洹
반오계자만 불여반일수다원
飯百萬須陀洹 不如飯一斯陀含
반백만수다원 불여반일사다함
飯千萬斯他含 不如飯一阿那含
반천만사다함 불여반일아나함
飯一億我那含 不如飯一阿羅漢
반일억아나함 불여반일아라한
飯十億阿羅漢 不如飯一辟支佛
반십억아라한 불여반일벽지불
飯百億辟支佛 不如飯一三世諸佛
반백억벽지불 불여반일삼세제불
飯千億三世佛 不如一無念無住無修無證之者
반천억삼세불 불여일무념무주무수무증지자

'악인 백명을 먹이는게 착한 이 한 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선인 천명에게 공양함이 오계지킴이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오계지킴이 만명에게 공양함이 수다원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수다원 백만명에게 공양함이 사다함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사다함 천만명에게 공양함이 아나함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아나함 1억명에게 공양함이 아라한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아라한 십억명에게 공양함이 벽지불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벽지불 백억명에게 공양함이 삼세제불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삼세불 천억명에게 공양함이 무심도인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다'

"마음에 티끌이 없어 이를 지키면 지극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12)
(佛言)人有二十難 貧窮布施難 豪貴學道難
(불언)인유이십난 빈궁보시난 호귀학도난
棄命必死難 得覩不經難 生値佛世難
기명필사난 득도불경난 생치불세난
忍色忍欲難 見好不求難 被辱不瞋難
인색인욕난 견호불구난 피욕부진난
有勢不臨難 觸事無心難
유세불임난 촉사무심난
廣學博究難 除滅我慢難 不輕未學難
광학박구난 제멸아만난 불경미학난
心行平等難 不說是非難
심행평등난 불설시비난
會善知識難 見性學道難
회선지식난 견성학도난
隨化度人難 覩境不動難 善解方便難
수화도인난 도경부동난 선행방편난

'사람에게 스무가지 어려움이 있다.
①빈궁한데 보시하는 것 ②돈많고 지위 높은데 도 배우는 것 ③목숨던져 죽기로 각오하는 것 ④경전을 구해 보는 것 ⑤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는 것 ⑥색심·욕망 참는 것 ⑦좋은 것 보고 탐내지 않는 것 ⑧욕을 보며 화내지 않는 것 ⑨세를 갖고 써먹지 않는 것 ⑩경계마다 무심으로 대하는 것 ⑪널리 배우고 두루 참구하는 것 ⑫아만심을 없애는 것 ⑬무식한 이 업수이 여기지 않는 것 ⑭항시 평등심 갖고 대하는 것 ⑮시비를 가리려 들지 않는 것 ⑯선지식을 만나는 것 ⑰자성불을 만나 도 배우는 것 ⑱상대에 따라 나투어 제도하는 것 ⑲경계에 부딪쳐 평상심 유지하는 것 ⑳방편을 두루 통달하는 것, 이 스무가지가 어렵다.'

(13)
沙門問佛 以何因緣 得知宿命
사문문불 이하인연 득지숙명
會其至道
회기지도
佛言 淨心守志 可會至道
불언 정심수지 가회지도
譬如磨鏡 垢去明存 斷欲無求
비여마경 구거명존 단욕무구
當得宿命
당득숙명

한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으로써 숙명을 알고 지극한 도를 깨닫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마음에 티끌이 없어 이를 지키면 지극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아 때를 벗기면 본래의 밝음만 있는 것 같이 욕심을 끊어 마음에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숙명을 알고 도를 깨닫게 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생각만하고 행으로

청소스님 〈석탄사 주지〉

약력
- 1921년 충남 청양 生
- 1951년 예산 수덕사에서 지선 스님을 은사로 득도
- 문경 대승사, 선산 도리사, 승주 송광사 등에서 참선 수행
- 1991년 정읍 석탄사 주지 취임
- 現 정읍 석탄사에 주석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보다는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예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생각한다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부모한테는 많은 빚을 졌는데 오직 자식만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일체중생을 다 자식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대자비지요. 자식만 사랑하고 부모를 받들지 않는 건 편중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자비입니다. 따라서 아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지, 이웃들이 가깝다 하여 무심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가까운 이들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도리인 5계중 한 계라도 파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입적하는 그 날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나는 5계중에서도 특히 '살생을 금하라'는 덕목을 스님뿐만 아니라 평소 신도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인간이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보호해야할 미물들을 마구 잡아 먹으니 그것 자체부터 틀려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목숨도 존귀하게 여겨야지요.

생명 존중은 우선 스님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스님들은 모든 중생의 부모요 스승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부모가 고기를 먹는데 안 먹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일체 걸림없이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처님말씀엔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끝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계를 잘 지킨다면 그것이 부처지 중생이겠습니까? 참고 또 참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기를 통한 자기 확신을 가져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절을 할 때 삼천배를 목표로 잡고 시작하면 이천오백 배쯤 되면 고비가 오고, 천 배를 계획으로 잡고 시작하면 칠백배쯤 되어 고비가 옵니다. 목표가 삼천배였을 때의 천 배는 수월하지만, 천 배를 목표로 했을 때는 같은 천배지만 더 힘듭니다. 즉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천배를 하더라도 아예 삼천 배를 할 작정으로 시작한다면 천 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란 자기가 다잡기 나름입니다. 극기로 자신을 통제하면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려고만 한다면 온 몸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과감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자들도 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생각만 열심히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망상이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불가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시절을 충남 공주에서 보냈는데 14세 되던 해부터 틈만 나면 수덕사에 와서 지냈습니다. 며칠을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절이 좋아져 시간 가는줄 몰랐지요. 그때마다 나를 찾으러 온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이렇게 사찰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스님들에 대한 동경과 수행자들의 삶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6·25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수덕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수행 생활을 돌이켜 보면 특별히 은사스님을 두고 정진하기 보다는 홀로 포행과 참선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노력했지요

"염불을 기복적으로 하면 나약한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불행 올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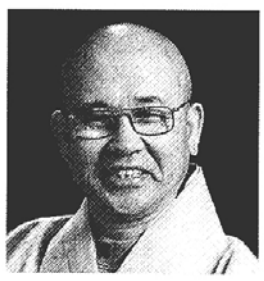
그래서 유일한 나의 은사스님이였던 수덕사 지선스님의 가르침은 평생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은사스님이 나를 불러 "남전스님에게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마음은 부처가 아니요, 지혜는 도가 아니다(心不是佛 智不是道)라면 허물이 있습니까?'하고 물었거든. 그러니 남전스님의 말씀이 '있다'고 대답하자 다시 조주스님이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 남전스님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며 지혜는 도가 아니다'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내가 묵묵부답하자 스님이 설명하셨지요. "마음이 부처가 아닐 것 같으면 마음을 내놓고 뭐가 있겠어. 그런데 허물이 있다고 했거든. 그것은 우주 자연 만상이 그대로 도(道)란 뜻이지. 개구즉착(開口卽錯), 즉 입을 열면 틀렸어.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해 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스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지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였는데 나중에는 한마디도 설한바 없다고 했거든. 그 도리를 잘 파악해야 해. 하지만 우주 자체가 그냥 그대로 도이지만 말을 안하면 어리석은 중생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 모두가 방편이지. 비유컨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면 손에 물이 묻어야 되며 불에 탄 사람을 구하려면 손에 연기도 쐬야 하고 불도 손에 닿아야 하는 것처럼 연기도 불도 모두 방편이야. 하지만 방편이 없으면 중생에게는 보여줄 도리가 없는 거야." 하시면서 한가지 일화를 더 말해 주셨습니다.

"조주스님의 제자가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조주스님이 '없다'고 했거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자 또 '무(無)'라고 대답했어. 또 있어. '무엇이 조사가 온 뜻입니까(祖師西來意).' 하니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하고 말했어. 어떻게 널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설조스님



기호 4번

"나라를 구하는 교단을 만들겠습니다"

— 소납 설조의 종단운영 기본종책은 이렇습니다 —

94년 종단 개혁불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진통과 희생을 안고 출범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염원을 담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제 갈길을 가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종단을 올바로 잡고 또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납 설조는 이같은 현 종단상황을 마냥 손놓고 바라볼 수 만은 없어 오랜 고민 끝에 종단을 바로 세우는 대임의 수행을 자청하고 몇가지 종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소납이 구상한 종책이 여러 부문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현의 일깨움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 종책 실천에 대한 곧은 의지와 굴하지 않는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반듯하게 하는데 김히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1. 종무(관리)분야
현 총무원의 방만한 기구를 축소하고 교구본사 중심으로 통제와 보완을 하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단내 인사와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돼 침체의 늪을 벗어나도록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2. 교육(도제양성)분야
기성세대보다 나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교육기관은 수행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분위기를 갖추도록 하고 산중의 전통교육 기관은 학과의 양을 늘려 사회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수행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은 선지식 중심으로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복지분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면면이 이어져 오는 정통선맥이 발양되어 인류구원의 본분을 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포교분야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포교를 외면하고는 '민족불교', '호국불교', '전통불교'를 아무리 외쳐도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포교의 활성화는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포교사를 양성할 수도 또는 대량 수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재교육을 실시하여 수행과 가람수호는 물론 기본 법회봉행으로 포교의 발판을 다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 역경분야
교단의 중요교육기관의 하나로 역경사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역경된 한글대장경을 각 사찰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경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으며 번역된 경전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한글경전 비치는 포교와 역경의 활성화를 기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으며 특히 역경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큰 분야별로 긴급한 것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납은 앞으로 사계의 전문가와 관계분야 종사자들의 고견을 수렴해 보다 완벽한 종책을 만들어 한국 불교를 '민족의 불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종교'로 이끌것입니다.
소납 설조는 원로 큰 스님들과 중진 대덕스님들의 인격을 믿으며 현명한 선택으로 오늘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설조 스님 이력

수 계 1948. 4. 15 충남 예산군 덕산면 정해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6. 9. 23 경남 합천군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학 력 1970. 2. 25 동국대 행정대학원 기획행정과 수료
경 력 1966. 3. 26 대구 동화사 총무재직
1967. 1. 31 충북 보은군 법주사 교무재 직
1971. 11. 7 총무원 교육국장 재직
1972. 7. 16 중앙종회의원 재직
1975. 10. 25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취임
1981. 1. 12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래사 주지 취임
1992. 9. 27 중앙종회의원 재직
1994. 4. 10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
1994. 7. 19 불국사 주지 취임
1997.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7. 10. 생명의 숲 가꾸기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